

“침체된 전북 체육 살려라”

전북 체육인들, 차기 도지사에게 안정적인 예산 확보·실업팀 창단 앞장 등 촉구

전북 체육인들이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침체된 전북 체육 살려라’며, 전북 체육이 한국 체육의 중심이 되고 체육 강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올곧은 체육 정책을 추진할 것을 차기 도지사에게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차기 도지사에게 바라는 체육 공약을 발표하면서 “자치단체장 및 도내 기관장들의 관심 저하로 전북 체육은 후퇴하고 있다며, “이렇다보니 학교체육과 전문체육은 체육 영재 발굴은 고사하고 선수가 없어 운동부(팀)를 구성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또한 “실업팀이 없고 예산이 부족해 우수 선수들과 지도자들은 타 시·도로 유출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에 전북 57만여 명의 체육인들은 차기 도지사에게 바라는 네가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한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된 만큼 전라북도 조례 제정을 통한 지방세의 3% 지원 등 안정적인 예산확보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안정적인 예산이 확보되면 학교체육·전문체육·생활체육이 선순환하는 선진체육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전북체육 재변 확대 및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다.

두번째로는 직장운동부(실업팀) 창단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실업팀을 창단할 경우 전북도는 창단비 및 운영비를



정강선 전북체육회장 등 전북 체육인들이 2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도지사에게 올곧은 체육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지원해야 한다. 실업팀이 없다보니 운동을 하고 싶어도 갈 곳이 없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타 시·도로 떠나야 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세번째로 국내·외 대회 및 전지훈련을 유지하는 시·군에게는 인센티브를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전북도에서 수많은 대회가 치러지고 전지훈련 매카로 떠오르게 되면 스포츠 산업 발전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 또한 홍보 효과도 크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기금 확대다. 현재 마련

돼 있는 체육진흥기금은 100억원으로 이자 수입을 활용해 우수선수 육성 지원 등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예산 또한 조례 개정을 통해 순차적 적립으로 기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전북 체육인들은 “체육은 복지다. 폭 넓은 예산을 지원해 전문 체육과 생활 체육인들의 복지와 행복추구권을 챙겨야 한다”며 “차기 도지사는 건강한 체육, 행복한 도민 빛나는 전북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전북 체육인들의 정책을 적극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장은성 기자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

무주 태권도원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영환)이 운영·관리하는 태권도원이 지난 20일 무주군으로부터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 받았다.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등에 따라 지정·운영되며 문화시설, 과학관, 체육시설, 자연휴양림 등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시설에 대해 시·군·구의 장이 지정하고 있다.

태권도원은 1,000여명이 동시에 이용 가능한 연수시설과 태권도 수련·체험·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이전에는 연 평균 5만여명의 청소년들이 방문해 태권도 연수와 체험 활동 등을 진행하는 등 프로그램과 시설의 우수성을 인정 받아왔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영환 이사장은 “청소년



년과 교직원들이 태권도 정신과 태권도의 교육적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안전한 태권도원 시설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등 정부로부터 청소년수련활동과 관련한 인증을 획득하는 등 태권도를 통한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온라인 세계태권도 품새 오픈 챌린지 I 성료

강유진 선수 등 16개 부문 우승자 가려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영환)이 주관하고 세계태권도연맹(총재 조정원)이 주최한 ‘무주 태권도원 온라인 2022 세계태권도 품새 오픈 챌린지 I(이하 온라인 품새 오픈 챌린지 I) 대회’가 20일 결승 경기를 끝으로 성공적인 막을 내렸다.

‘온라인 품새 오픈 챌린지 I’은 G2 등급의 태권도 국제대회로, 국가대표 부문에 45개국 189명, 오픈 부문에 47개국 1,491명 등 총 22개국 1,680명이 참가했다. 3월 14일부터 진행된 이번 대회는 각 부문별 출전자들이 촬영한 품새 영상을 예선, 본선 결선의 과정을 통해 심판들이 온라인 채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대회 영상은 세계태권도연맹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 관람이 가능하다.

대회 결과 국가대표 부문 남자 30세 이하에서는 Rodolfo REYES JR(필리핀)선수가, 여자 40세 이하의 강유진(한국)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는 등 16개 부문 우승자가 가려졌다. 국가대표

부문은 각 순위와 성적 별 랭킹 포인트를 차등 지급하고 결승에 진출한 상위 8명의 선수들은 올해 10월에 개최될 예정인 G6 등급의 ‘무주 태권도원 온라인 2022 세계태권도 품새 오픈 챌린지 파이널’ 대회의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

국가대표 부문과 함께 진행된 오픈 부문 개인전에서는 김하준(한국) 등 21명이 우승을 차지했고, 단체전은 이란 IRI-academy_mousnia 이 우승의 영광을 가져갔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영환 이사장은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많은 태권도인들의 열정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국제대회였다”라며 “품새 오픈 챌린지 I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탕으로 7월과 10월에 진행 될 챌린지 II와 파이널 역시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자신감과 동력을 확보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무주 태권도원 온라인 2022 세계태권도 품새 오픈 챌린지 II’ 대회의 참가자 모집은 6월 20일부터 7월 1일까지 진행되고, 경기는 7월 1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기자

태권도연맹, 농구와 함께 4번째 최다회원국 세계연맹으로

세계태권도연맹(WT)이 20일 경기도 고양에서 열린 화상 집행위원회에서 인도양에 있는 몰디브를 21번째 회원국으로 승인했다. 이로써 WT는 국제경기연맹 중 탁구(227개국), 배구(222개국), 육상(214개국)에 이어 농구와 함께 4번째로 많은 회원국을 보유하게 됐다.

집행위원회는 3년 다승제로 경기를 하는 경우 무승부를 방지하기 위해 경주의 수를 따져 반드시 승부를 가리도록 하는 경기규칙을 승

인했다. 또 두 선수가 5초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감점을 주던 것에서 3초로 단축하고, 다이내믹한 경기를 위해 미는 행위에 대한 규정을 강화했다. 변경된 경기규칙은 국가협회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차기 집행위원회는 다음달 12일 스위스 로잔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본부 올림픽 하우스에서 열린다. /뉴시스

시즌 첫 3루수 선발 출전 김하성 ‘홈런포’

MLB 신시내티전에서 에이브럼스와 동반 출전, 7회말 솔로홈런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레스)이 시즌 첫 3루수로 선발 출전하며 시즌 첫 홈런포를 신고했다.

김하성은 2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펠코 파크에서 열린 신시내티 레즈와 2022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홈경기에 3루수 겸 9번타자로 나서 7회말 솔로홈런을 터뜨리며 4타수 1안타 1득점을 기록했다.

전날 신시내티전에서 3타수 무안타에 그치며 0.208까지 떨어졌던 김하성의 타율은 0.214로 약간 상승했다. 이날 샌디에이고는 김하성의 홈런포 등으로 신시내티에 6-0으로 이겼다.

그동안 지명타자로 뛰었던 루크 보이트가 나서지 않으면서 포지션의 이동이 있었다. 3루수 매니 파차도가 지명타자를 대신 맡았고 CJ 에이브럼스가 유격수를 담당하면서 김하성에게 3루수 자리가 주어졌다. 올 시즌 유격수로 뛰다가 3루수로 변경해서 뛴 적은 두 차례 있었

지만 3루수로 선발 출전한 것은 처음이었다. 6회초 토니 팝의 타구를 걷어내며 안정적인로 핫코너를 지킨 김하성의 타격은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3회말과 5회말 각각 1사 주자 없는 상황에 나서 3루수 파울플라이에 그쳤다.

하지만 김하성은 7회말 바뀐 투수 벅 파머의 시속 93.5마일(150.5km) 포심 패스트볼 초구를 걸어올려 가운데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을 만들어냈다. 공이 한가운데로 들어오면서 김하성의 방망이가 날카롭게 돌아간 결과였다.

김하성은 지난해 10월 1일 LA 다저스와 경기 이후 6개월여만에 시즌 첫 홈런이자 통산 9번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김하성은 8회말 네 번째 타석에서 3볼 2스트라이크 풀카운트 접전 상황에서 유격수 앞 땅볼에 그치며 멀티히트 기록 기회를 다



음으로 넘겼다. 김하성은 올 시즌 9번타를 기록하면서 단 한 차례도 20타 이상 경기를 치르지 못했다.

직전 이날까지 3-0으로 근소하게 앞서던 샌디에이고는 김하성의 홈런으로 4점차 여유를 갖게 됐고 8회말에도 조르지 알파로의 희생플라이와 에이브럼스의 적시 2루타로 두 점을 더 보태 6점차 완승을 거뒀다. /뉴시스

